

월요광장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차창 밖으로 보이는 교통 체증과 꽉 막힌 도로, 그 안에서 스스로 묻게 된다. “왜 우리는 여전히 차를 타고 있을까? 자동차는 정말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문명의 선물일까?”

둘어봐보면 자동차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줬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차 안에서 보내는 1시간만 줄여도 아이와 아침 식탁에 앉을 수 있고 걷기 습관만 늘려도 혈압과 체중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이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광주에 사는 수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건강의 도구이자 지구를 살리는 시스템이며 삶의 질을 회복하는 열쇠다.

전 세계 도시와 연구기관은 대중교통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수치로 입증한다. 일본은 사카에서 6천명을 조사한 결과 자가용 이용자보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비만율은 44%, 당뇨병 위험은 34%, 고혈압은 27% 낮았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연구에서도

나와 가족, 지구 위해 대중교통이 필요한 이유

대중교통 이용률이 1% 증가하면 지역 비만율은 0.47% 감소했다. 런던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는 차량 중심 교외 거주자보다 하루 평균 20분 더 걷고 심장 질환 위험도 낮았다.

우리는 단지 버스 한 정거장, 지하철 몇 구간을 이동하는 사이에도 더 건강해지고 있다. 건강은 신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건강도 교통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자가용 통근자는 대중교통 이용자에 비해 불안감이 21%, 우울감은 19% 더 높고 수면 질도 낮았다. 반면 스웨덴 예테보리에서는 버스와 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노인의 경우 사회적 연결이 정신건강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광주의 고령 인구는 이미 18%를 넘어섰다. 교통은 ‘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연결하는 기반이다. 대중교통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의 건강과 일상, 공동체 참여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대중교통의 환경적 효과도 크다. 프랑스 파리는 차량 제한과 인프라 확대로 20년간 초미세먼지를 55%, 이산화질소를 50% 줄였다. 도쿄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78%에 이르며 교통 부문 탄소 배출은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뉴욕은 미국 전체 대중교통 승객의 40%를 수용하며 1인당 탄소 배출량은 미국 평균의 절반인 연간 7.5톤에 불과하다. 캐나다 밴쿠버는 자동차 사용률을 10년간 20% 줄인 결과 초미세먼지는 32% 감소했고 호흡기 질환 진료비는 연간 1500만 캐나다 달러가 줄었다.

공기를 바꾸는 데 수십 년이 필요하지 않다. 차량 통행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대중교통 확대는 건강·환경·기후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광주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체계가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갖춰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문제는 ‘교통 시스템을 얼마나 갖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다. 자가용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일부 지역은 버스를 30분 넘게 기다려야 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정류장 접근성도 부족하다.

이제 교통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교통 인프라를 재설계해야 한다. 친환경 저상버스 및 전기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노인 보행 중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버스 우선 신호체계·전용차로를 재정비하면서 혼잡통행료 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발상의 전환이고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또한 건강 정책이자 환경 정책이며 돌봄 정책이다. 대중교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도시를 위한 필수 기반이자 나와 가족,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사회적 투자다.

서울이든 파리를 변화한 도시에는 공통점이 있다. 정책이 길을 열면 시민은 그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제 광주도 그 길에 들어서야 한다. 나와 가족의 삶을 바꾸고 다음 세대에게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남겨주기 위해서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이른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빛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의식은 아직 잠결에 머물러 있지만 살갗은 미세한 떨림으로 빛을 받아들인다. 따스함, 밝음, 시작의 기운. 그것은 하루를 깨우는 단순한 신호이면서도, 삶 전체를 향해 나아가라는 어떤 명령처럼 느껴진다. 모든 생명은 빛을 따라 움직인다. 해바라기처럼, 갓난아기처럼, 혹은 상처 입은 영혼처럼.

우리는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교차하는 빛의 삼중주 속에서 살아간다. 낮의 햇빛 속을 걷고, 밤의 달빛 아래에서 돌아보며, 깊은 밤 별빛을 따라 무언가를 꿈꾼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란, 이 빛 사이를 오가는 여정인지도 모르겠다.

햇빛은 존재의 언어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생명을 재촉하며 시간을 밀어낸다. 사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세계를 질서 속에 놓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정오의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뜨겁고 명확한 선으로 존재를 직면하게 한다. 햇빛은 살아있으라는 신호이자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생명의 기회다.

햇빛은 종종 영웅의 탄생과 연결된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알에서 태어난 ‘빛의 자식’이다. 그의 어머니

햇빛과 달빛과 별빛의 삼중주

유화부인은 해를 상징하는 하늘의 존재와 만나 그를 잉태한다. 주몽은 궁술에 능한 태양의 사자처럼 묘사되며 그 존재의 기원 자체가 빛과 결부된다. 빛은 그를 이끌고 길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햇빛은 때로 모든 가면을 걷어내는 실존의 칼날이기도 하다. 카뮈의 ‘이방인’에서 모르소는 눈부시도록 잔혹한 한낮의 햇빛 아래 살인을 저지른다. 그 빛은 피할 수 없는 진실처럼 그를 벗겨내고, 결국 그는 자신과 그리고 부조리한 세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달빛은 드러내기보다 감싸는 빛이다. 마음의 표정을 비추고, 낮의 이성으로는 닿지 못하는 무의식의 결을 스쳐 간다. 아르테미스는 순결과 신비, 동시에 죽음과 회귀를 품은 달의 여신이다. 그녀는 햇빛이 미치지 않는 경계 너머, 빛의 음영 속에 존재하는 신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숲으로 고요히 스며든다.

달빛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다. 그 아래에서 우리는 그리움에 젖고, 회한을 되새기며 오래된 사랑을 불러낸다. 달빛은 잊힌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소리 없이 심연의 주름을 어루만지는 조용하고도 깊은 고백의 빛이다.

달은 종종 사무치는 회한과 기원을 드러낸다. ‘메밀꽃 필 무렵’의 허생원은 달빛을 받으며 과거의 사랑을 떠올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다. ‘정음사’의 달은 여인의 기원과 함께한다. 차갑지만 따뜻한, 멀지만 가까운 영원히 회귀하는 빛. 달빛은 빈 의자처럼 다시 돌아오기를 꿈꾼다.

별빛은 가장 멀리서 오는 가장 오래된 빛이다. 별은 죽은 뒤에에도 빛을 남기고, 그 빛은 수천만 년을 건너 우

리의 노동자에 닿는다. 우리는 과거의 빛을 현재에 반 아이들이며, 그 안에서 미래를 상상한다. 별빛은 우주의 시간 속에 존재를 잇는 고리이고, 희망이자 운명이며, 영원의 서곡이다.

알폰스 도데의 단편 ‘별’에는 목동과 아가씨가 별을 바라보며 나누는 조용한 사랑이 담겨 있다. 총총한 별빛은 말보다 깊고 또렷하다. 별은 설렘이고 아쉬움이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편지이자, 이미 지나간 사랑의 흔적이다. 별빛은 사공을 초월해 시간을 중첩해 놓는다. 별빛은 우주의 지도를 그리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고대의 별자리들은 인간의 욕망과 운명을 하늘에 새긴 상징문자이자 기원의 서사였다. 인간은 별을 따라 길을 찾고, 운명을 읽고, 삶의 의미를 물었다. 별빛은 시간과 꿈의 매개자다.

지금 우리는 ‘빛의 혁명’ 속에 살고 있다. LED가 도시의 밤을 밝히고, 스크린의 빛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태양의 시간은 인공조명에 밀려나고, 달빛보다 백라이트가, 별빛보다 검색창의 커서가 더 환하다. 모두가 빛의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어쩔지 더 어둡고 막막해진 것만 같다.

우리는 여전히 진짜 빛을 갈망한다. 인공의 빛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더 절실히 자연의 빛을, 존재의 빛을 원한다. 살을 데우는 햇빛, 마음을 감싸는 달빛, 시간을 건너 도달한 별빛. 이 빛들은 인간 존재의 감각을 일깨우고, 삶의 결을 따라 흐르는 서정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단지 물리적 광원이 아니라, 삶의 길을 연주하는 빛의 화음이다. 그 삼중주를 따라 우리는 다시 길을 찾고, 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어둠 너머의 아침을 기다린다.

신품종은 신이 주신 선물

커를 이용한 유전체 선발 기술’이 도입되면서 10년 이상의 기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신품종이 로열티를 받으며 과일뿐만이 아니라 묘목까지도 수출 판매되고 있다.

참다래 ‘해금’의 경우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여 향후 10년간 30억원의 로열티를 받기로 하고 프랑스 등 유럽에 묘목과 재배 기술을 수출하고 있으니 자부심과 함께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가 싶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뉴질랜드 ‘해스프리카골드’와 제주 등지에서 골드키위 계약재배를 하면서 2003년부터 20년 동안 매출액의 15%를 로열티로 지불해 왔다. 2017년~2021년 기간에만 86억6000만원을 지불한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전남지역특화작목발현협회를 역임했던 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제1기 지방행정(산업진흥 분야)의 달인이었는데 벌써 14기를 뽑았다고 한다.

세월이 흐른 지금 후배들이 결실을 맺어 훌륭하고 맛있는 신품종들을 많이 탄생시켰다. 그 가운데에도 필자는 나주 소재 국립배연구센터에서 육성한 ‘감풍’ 단감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일본에서 도입된 ‘태추’라는 단감은 연하고 맛은 좋으나 과일을 먹고 난 뒷맛이 약간 싱거운 느낌이 있다. 재배농가 입장에서선 감나무의 수령이 오래되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열매가 맺힐 암꽃 착생이 적어지고 수꽃만 많이 피어 생산량 감소로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 감 품종이다.

두 품종을 교배시켜 탄생한 ‘감풍’은 절묘하게 두 단

감의 장점을 잘 받아들였다. 연하고 부드러운 과육에 아주 큰 대과이며 홍시가 되어도 과육이 단단하여 칼로 잘라먹는데 흐트러짐이 없는 장점이 있다. 과일 한 개의 무게가 550g 이상 나오기도 하며 평균 무게가 417g으로 일반 단감의 2배 정도 되니 수확 작업이 즐겁다.

앞으로 2027년부터는 1000㎡ 이상의 대장에서는 의무적으로 50% 이상 GAP 이상의 농산물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 한다고 한다. 재배농가는 이에 미리 대비를 하는 준비도 필요하다.

쌀, 보리 등 곡물만이 식량안보 대상 작목이 아니다. 지난해 배, 사과, 배추 등의 가격 폭등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시대는 밥상 물가만이 아닌 먹고 사는 모든 농산물이 다 식량안보 작목이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에 최강의 농업국가인 미국에서 조그만 달걀 한 알이 부족하여 수입하고 밀수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비상계엄 정국에 새로이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축수산의 미래, K-푸드 성장’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 신품종 육성만이 기후변화와 미래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열쇠임을 인지하고 이전 정부처럼 연구기관들의 R&D 예산을 깎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와 기술개발비의 전폭적인 지원이 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한층 더 우수한 신품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통합과 실용 의지 보인 이재명 정부 첫 인사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데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인선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새 정부 첫 인사로 국무총리에 김 의원을 비롯해 국정원장에 이종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강훈식, 안보실장에 위성락 등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을 발표했다. 5일에는 정통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데 이어 8일에는 이상호 정부수석, 오폡수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비서진을 추가로 인선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는 국정 방향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통합과 실용 의지를 담았다는 의미와 함께 무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

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오랜 경력을 갖춘 인물들을 전진 배치, 별도의 현장 적응 없이 바로 투입해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인사라는 점도 눈에 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을 검찰 개혁의 핵심 자리인 정부수석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검찰을 알아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정책실장, 안보실장, 경호처장 등 전반기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한 점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높이는 지점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불변의 진리다.

일은 사람이 하는 만큼 어떤 인물을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에 따라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는 그런 점에서 우려보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통합과 실용을 국정 모토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는 첫 인사로 이를 입증했다. 후속 비서진과 장관급 인사도 이런 관점에서 조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21년만에 140만명이 무너진 광주시 인구

광주시 인구가 21년만에 140만명 선이 무너졌다. 청년층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139만 988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계속 줄어든던 인구가 마침내 140만명 선이 붕괴된 것은 2004년 이후 21년만이다. 광주시 인구는 2014년 147만 58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다 결국 140만명 선마저 붕괴된 것이다.

문제는 청년층 유출이 광주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광주는 올 1분기에만 4945명이 순유출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순유출 인구 1위를 기록했는데 지난달에만 순유출 인구의 절반 가량인 48.3%가 20~30대 청년들이었다.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광

주시가 호남의 거점도시로 5대 광역시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광역시는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광역시인 광주시의 인구조차 줄어든다면 전남지역 시군은 소멸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청년층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드물기 때문이다. 직업을 가져야 결혼도 할텐데 대학 진학 때부터 ‘인서울’에 올인하다보니 인재들이 떠나고 인재를 채용하는 좋은 직장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광주의 청년층 인구 유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갓 출범한 새 정부의 지방 일자리 정책이 시선이 모아진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방대 혁신, 광역권 메가시티 정책 등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 돼 청년들이 더 이상 광주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無等鼓

강가나 길가, 독길에서 자주 눈에 띄는 가시박은 생김새만 보면 소박한 들꽃 같지만 높은 번식력으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해식물이다. 덩굴로 다른 식물을 덮고 단 중 북미산 가시박을 들여온 것이 시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접촉 효과는 미미했고 방치된 식물은 특유의 번식력에 힘입어 들과 강둑을 타고 퍼져나갔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점차 번식 영역을 넓히며

생태계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는 2009년 이를 공식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다.

농업 생태계를 뒤흔든 가시박의 생존 전략은 놀랍다. 씨앗은 한 번 떨어지면 수십 년간 토양에 잠복할 수 있고 남부지방은 5월 중, 중북부는 5월 중순 이후 싹을 틔운다. 꽃이 피고 씨앗을 맺는 속도도 빠르다. 70일 정도면 번식 준비를 마치고 생육 조건이 맞지 않으면 씨앗은 다음 세대를 위해 휴면 상태로 남는다. 열매를 덮은 가

시와 틈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을 지녀 장거리 확산에 유리하다. 번식력도 뛰어나 80%에 이르는 높

은 발아율로 퇴치하기가 쉽지 않다.

전국적으로 확산한 가시박을 두고 일각에서는 양봉 분야와 친환경 비료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제거 방법은 어린 식물 상태에서 뽑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치는 검찰이든 가시박처럼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구태 악’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싹부터 제거하는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한 지점이다.

/김대성 전남 중서부 전북 취재부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에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제 2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